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본 문 마태복음 6장 6-7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도 모두 잘 듣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하여 자기의 운명, 가정의 운명, 민족의 운명, 섭리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주님이 각자에게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섭리인들 전체를 보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1. 기도하는 방법

1) 마음과 몸자세를 바르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듯이, 하나님도 나 예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는 내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대함도 달라진다. 그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몸자세, 마음 자세 다 갖추고 진실로, 사랑으로, 사실대로, 간절히 고백해야 된다.

2)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성경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 믿고서 기도해야 된다.

3)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하라.

또한 성경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약 5:16).’ 하였으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땅에서 지은 죄를 평소에 꼭꼭 회개하여 깨끗이 없애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나는 그 기도를 더욱 잘 들어준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죄를 통회 자복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고 간절히 회개기도 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주관하고 사망에 거하게 되므로, 의식하여 나를 멀리하고 피하며 내 아버지를 멀리하고 피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 피하지 않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잘했으면 의식 없이 그 사람 앞에 자꾸 나타나지 않느냐.

4) 회개할 때 사탄이 방해하니 이를 알아야 한다.

죄지는 자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그는 사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므로 사탄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 회개기도를 할 때 하기 싫게 하기도 하고, 혹은 두렵게 하면서 “너는 용서 못 받는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뜻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기도 하며, 혹은 “별로 큰 죄가 아니다.” 하며 안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외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수습 가지의 느낌을 주면서 그 마음을 통해 회개하는 것을 막는다.

사탄은 죄지는 자가 회개하면 죄로 힐문할 조건이 없어서 그를 떠나가야 되기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과 심란한 마음을 주면서, 죄지는 것을 확대하면서 괴롭힌다. 서운한 마음을 가져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지은 죄로 인하여 포기하게 만든다. “너는 여기서는 복직되지 않으니 섭리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 해야 복직된다.” 고 하는 마음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사를 떠나게 하고, 옳진 곳에서의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니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즉시 버려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예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고 내게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내가 부른 곳에서 충성하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여 유익을 남기고 승리해야 된다. 섭리사에 불렀으니 이곳에서 뜻을 펴자고 부른 것이다.

5)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할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 중에 의식하지 않게 해야 된다. 마음의 문도 꼭 닫고 마음의 기도 골방에서 깊이 기도해야 된다.

2. 기도하면 때를 맞추어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할 때의 자세도, 상황도, 기도하는 내용도 천사들은 다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 백성이 임금에게 간절히 고하고 간구하듯이,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고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신다. 어떤 것은 즉시, 어떤 것은 조금 있다가,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야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기도 내용에 따라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신다.

어떤 사람은 “믿고 간곡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너희를 위해 때를 맞춰 이루어지게 하여 더 좋게 해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지난날 기도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고 이루어 주라고 하늘 아버지가 허락했어도 시간이 얼마라도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니 너희는 믿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 사탄이 틈타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하나 되어 생활해야 된다.

3. 매일 기도하라. 기도로 나와 대화하자.

매일 드리는 제사인 기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일사천리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게 묻고 이야기하여 네 마음을 통해 내가 전달하는 말을 느끼고 깨달아라. 나와 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 다. ‘생활의 대화’ 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마음이 신령해져 내가 말하는 것이 네 마음에 확실하고 뜨겁게 느껴진다.

내가 친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을 통해 말로 내 뜻을 전달하니, 내가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본 것같이 여기고 행해야 된다.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 중한 것이다.

어떤 자에게는 나의 말을 마음으로만 느껴지게 하

고, 어떤 자에게는 만물을 사역자로 삼아 순간순간 깨우쳐 주기도 한다. 사람의 개성과 사명에 따라 다르고,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함도 다른 것이다.

사람마다 영급이 다르고, 정신과 생각과 혼적인 처지가 다르다. 사람의 개성과 그때그때 처한 혼적인 마음의 처지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에 해당되는 대로 대해 주고 응답해 준다. 그러니 ‘나에게는 뜻이 없나?’ 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줄 수도 없다. 전체를 보고 각자에게 주니 무엇을 주었는지,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준 말씀을 서로 주고 받고 이야기하며 배우는 것이다.

시제는 사용하는 물건이고, 과일과 채소는 먹는 음식이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명도 다르다. 따라서 나는 전체를 보면서 조개 준다. 이러한 내 아버지의 뜻과 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사명이 작다, 크다고 하지 말아라. 다 귀하다. 그 일을 얼마나 충성으로 잘했느냐가 가치 있고 큰 것이다. 다른 형제가 하는 일도 자기의 일과 같다.

4. 매일 기도하라. 기도는 자기 영, 혼(마음), 육을 살린다.

기도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잠자듯이, 매일 씻고 닦듯이 생활이 되어 해야 된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니 강한 마음을 먹고 수십 번, 수백 번씩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각자의 삶을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그때그때 꼭꼭 필요한 것을 행하면서, 왜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억지로 하고 매일 하지 않느냐. 매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씻고 닦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같이 영과 마음의 상황도 표가 나게 달라진다.

기도하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마음도 깨끗해진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병든 자가 되어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 운명이 그날그날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른 뜻이 달라져 축대가 옮겨지게 된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자기를 그같이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고, 주관을 받은 그

삶을 살게 된다.

기도는 자기 육신과 마음과 영을 살린다. 또한 자기 꿈과 이상을 이루게 한다. 고생하면서도 기도함으로 자기 육신과 마음과 영이 10배, 100배 더 고통 받는 세계로 가지 않게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받는 육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의 고통보다 고생되어도 기도함으로 힘이 들어 받는 고통이 훨씬 적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편히 일반적인 기도만 하면서 육신도 마음도 편하게 살자고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도 귀신도 이길 수 없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나 예수도 그에게 큰 의향이 없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어느 누구도 의식 말고, 시간도 의식 말고 기도하라. 아주 시간을 내서 자기 방을 대청소하듯이, 아주 시간을 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듯이, 자기 자신과 형제들과 민족과 세계와 섭리사를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6.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라.

기도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기도로 형제와 민족도 다스려야 된다. 기도로 자기 마음을 잡아야 된다. 기도로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그릇된 잡생각과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씻어 내고 자르고 각오해야 된다. 기도로 내게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심정을 알리고 다짐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못 하게 된다.

마음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기울이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쏟아진다. 마음은 자기 육신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리저리 출렁거리며 기울어져 쏟아진다.

모두 마음을 잡고 지켜야 된다. 마음에 따라 영도 육도 끌려간다. 모두 기도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하면 그릇된 것을 행하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를 받아 지상에서 살면서도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지상에서 사망권에 처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가 기도하여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의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된다.

7. 오늘 기도하고, 오늘 행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기를 ‘지금은 못 하여 어

렵게 살아도 후에는 잘하여 벗어날 거야.’ 한다. 그리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벗어나야 된다. 미루는 자는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 일을 오늘 해야 내일 일도 하게 된다.

너희들이 작년에 결심하기를 ‘새해에는 하겠다.’ 고 했어도 새해 한 달을 살아 보니 어떠하냐? 작년에 못 했던 것을 했느냐? 물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하다가는 끝내 못 하게 된다.

내 말을 듣고 감동받고 깨달았을 때 해야 된다. 오늘 내 말을 들었으니 오늘 즉시 행해야 된다. 네 마음이 하게 하고, 네 마음이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네 몸의 주인이다. 못 하면 그 대가로 네 마음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기도할 때가 있다. 행할 때가 있다. 그때 안 하면 그다음에는 어렵다. 실천해야 네 영도 육도 그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다. 내가 말씀했으니 네 마음이 말씀의 힘을 받고 행하라. 나는 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돕고, 대화할 것이다. 행하는 자의 생활 속에 함께할 것이다.

서로 돕고, 이끌어 주고, 하나 되어야 자기의 어려움도 이겨 내고 모든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다. 기도해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다. 기도해야 마음을 잡게 되어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섭리사 안에서 분쟁하여 뛰쳐나가지 않는다.

8.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 정신일도 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 정신일도 하여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라. 그래야 너의 정신의 문이 열려 혼의 세계를 벗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 신령한 기도를 하여 나를 만나게 된다.

9.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얼마나 진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 어떤 일을 도와주듯이 나도 그러하다.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자기를 살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해 주겠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 먹고, 입고, 씻고, 자기 할 일을 하듯이 기도도 자기가 해야 된다.

10.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 기도해야 지옥을 벗어난다. 기도하는 자는 지옥을 벗어나게 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 기도해야 근신하게 된다.
- 기도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 기도해야 네 마음을 잡아 네 마음과 몸이 범죄하지 않게 된다.
- 기도해야 온전한 길, 곧 나 예수를 찾아 나와 같이 살게 된다.
- 기도해야 네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 기도해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세상 유혹을 자르며, 내 손을 잡게 된다.
- 기도해야 어려움을 참게 되고 환난을 이긴다.
- 기도해야 영육이 강건해진다.
- 기도해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그 불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다.
- 기도해야 지혜를 받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
- 기도해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서 능력이 나가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
- 기도해야 죽음을 피해 살게 된다.
- 기도해야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벗어나 생명권에서 살게 된다.
- 기도해야 현재에도 앞날에도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이기게 된다.
- 기도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 기도해야 정신이 10배, 100배 강해진다.
- 기도해야 너 때문에 십자가 위에 매달린 나 예수의 몸이 내려와 너를 도와주고 사랑해 준다.
- 기도해야 올해 전도의 표적이 일어난다.
- 기도하면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도 만사형통한다.
- 기도해야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 기도해야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고, 말과 행실도 양같이 변화된다.
- 기도해야 휴거되지 못할 자도 휴거된다. 휴거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기도다.
- 기도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 기도해야 옳은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하지 않게 된다.
- 기도해야 어디를 가도 인생 지루하지 않게 기쁨으로 살게 된다.
- 기도는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 있다.
- 기도해야 호랑이같이 담대해진다.
- 기도해야 불가능한 것을 능히 행하여 이룬다.
- 기도해야 앞으로 각 나라, 각 교파, 각 교회, 각 민족에게 닥칠 말세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
-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한 말씀과 같이 너희 앞날에 시험이 닥친다. 내 말을 믿고 행하라. 지금은 세상의 말세다. 너희는 말세에 태어난 몸들이다. 하면 좋고, 못 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시대에 태어난 자가 된다.
- 기도해야 제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여 정상으로 행하게 된다.

11. 기도하는 시간은 너와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깊이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 마음이 감동된다. 남녀가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하며 마음이 통해야, 사랑으로 통하여 사랑하게 된다. 기도해야 너희들의 신랑인 나 예수와 사랑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시간은 너와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다. 남녀가 서로 깊은 대화를 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감동되어 만나듯이, 기도는 너와 나의 사랑의 대화이며, 인생의 대화이며, 네 영과의 대화이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만난다. 기도해야 기도의 마음 방에서 너를 만나 사랑한다.

고로 매일 새벽에 기도하라. 낮에도 기도하라. 진정으로 깊이 기도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는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앞에 놓고 보통으로 대화하며 만나고, 몸만 스치고 옷만 만지고 마는 자와 같다.

정신일도 하여 마음을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마음으로 어떤 계시를 받아도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깨달아진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전도를 하는 자들도, 관리를 하는 자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확실히 기도해야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마음을 받고, 내 아버지의 신을 받아 나 예수와 함께 행동으로 옮겨 강하게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실천하지 못한

것을 능히 행하여 자기 앞에 넘어야 할 산을 넘게 된다.
환난, 핍박, 시험들을 벗어나 다스리게 된다.

이제 온 자들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자들도,
나이가 어린 자들도, 어른들도 모두 매일 진정으로 깊이
기도하여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자.
그리하여 나의 손을 잡고 네 자신부터 온전히 구하고
형제들과 생명들을 구원하자.

12. 당부의 말씀

기도의 필요성은 계시자들도 늘 말하니, 그 말씀을
귀히 듣고 읽어 보아라. 기도한 자들에게 내가 귀히
준 말씀이다. 모두 너희들 각자에게 준 말씀이다. 그들
에게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계시하였으
니 계시를 받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엄중히 읽고, 네 마
음에 입력하고 새겨라. 그래야 행하게 된다. 나 예수의
계시를 소홀히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얼마
나 손해가 가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기쁨은 하늘까지 닿는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마음
을 애태운다. 능히 행할 수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
었다느니,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느니, 자기는 하나님과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자기를 각종 문제 가운데
놔두고 이성으로 시험에 들게 놔두었는지 이해가 안 된
다고 하면서, 내가 듣기에 참으로 심정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구나.

나와 일체 되어 내게 묻지 않고 내가 좋아서 네
마음이 허락하여 행함으로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이성의
죄를 지어 놓고서,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주관을 받아
자꾸 투덜대고 이유를 대며 하늘과 형제들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회개하지 않게 되고, 더욱 더 사망
으로 빠지게 된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앞으로 잘할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단
고 각오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므로 너희가 사탄에게 이
끌려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내 사랑을 알고 내가 말한
것을 즉시 행하자. 행하면 즉시 너희 마음이 유쾌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즉시 행해야 행해지게 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너희 구원자 예수가...

주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섬리사 각 교
회와 나라를 보시고 기도의 방법과 왜 기도를 해야 되
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생이 깨달은 것을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 기도하는 자들의 영을 보면 주님 가까이에 있습
니다. 또한 그 영은 건강하게 보이고, 빛이 나고, 비교
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통
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 영이 어둡게 보이고, 옷도 일
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영이 쇠잔하고 약합니다. 어
떤 영은 병든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
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과 안 하는 사람들의 영을 보면 그들이 거하는 주관권
이 확실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보아도 그 육신
과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 기도할 때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치 캄캄
한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불안·걱정·불
평·괴로움·마음의 고통들이 사탄과 함께 마음속에서
물러갑니다.

사탄은 근심·걱정·염려·불안·쓸쓸함·고독·
약함을 주는 영입니다. 마귀가 옆에 와 있으면 마치 찬
바람이 불었을 때 몸이 차가움을 느끼듯이 마귀의 그
행위가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때 즉시 기도하면 순간 그
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쳐다보십니다.

- 기도는 신앙의 무기가 됩니다. 기도는 자기 앞
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검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
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께 고하여 알림으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 기도는 의의 날개입니다.

- 기도는 자기가 급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수를 셀 것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 마음을
위해, 자기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
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생에게 편지로 자기 사연을 알릴 때도 한두 줄
가지고는 알릴 수 없습니다. 여러 줄을 써야 충분히 자
기 사연을 알리듯이 기도도 기본으로 여러 번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려면 수십 번, 수
백 번씩 붓이 가야 되듯이, 밥을 먹을 때 시간에 상관없
이,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수를 셀 것도 없이 먹는
데 빠져 배가 찰 때까지 먹듯이, 기도도 한두 번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만사의 이치가 동일합니다. 목욕탕에서 텅텅 불은
때를 밀더라도 수십 번씩 손이 가야 깨끗하게 밀어집니
다. 기도도 이와 같이 수십 번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자는 자기가 아니므로 자기 생각으로 조금하
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니 기
도하는 우리는 충성과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면 서
로 망하고 없어졌을 것이고, 다 왕도 되고 재벌가도 되
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것에 응답하시고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핵심> 기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하
고 사랑하면 시간도, 그 어떤 고통도 따지지 않고 거기
빠져 그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선생이 제시간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였습
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를 가
까이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
라!”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진정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자연스럽게 사탄이 물러간다. 기도
함으로 순리로 말없이 사탄이 물러가게 하자.’ 하고 주
님과 더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랬
더니 그 여자는 나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마치 나의
애인같이 나를 대했습니다.

그날 할 만큼 기도한 후에 목상했습니다. 그 여인

은 내가 생시에 본 얼굴도 아니었기에 누군지 정말 궁
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여쭙 보니 주님은 말
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다.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하고 품어 주어 신부로 대
하지 않느냐. 나를 여인으로 보여 준 것이다. 사탄이 아
니다. 그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도 기도는 나라고 말해
주고, 기도하면 내가 신부로 대해 준다고 전해 주어
라.” 했습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고 깊이 오래 기도하면 기도로 주님과 사랑
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애인이다. 기도는 나의 신랑 예수
님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벽에 집에서 문대며
집에서 기도한다고 교회에 가지 않고 게으르게 산 사람
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의 대하심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신부라고
하는 자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고, 이렇게 애간장
을 오랫동안 태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시
간인 줄을 모르고 사니 정이 안 들어서 더 이상 사랑하
며 살 수 없다.” 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렸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같이 깊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도가 나 예수 신랑이니 모두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
하는 새벽 시간, 기도하는 낮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모
든 나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1:1
로 대하는 시간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다가 나와 같이 영계도 가고, 천
국도 가고, 지옥에 전학 가서 지옥의 그 비밀을 보여 주
기도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은밀한 짓들을 주님이 다 보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 주었으니
이제 지난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꼭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다시 기도하면 너희는 나의 신부니까 사랑
해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관계
가 멀어져 결국 사랑이 죽어 형제 관계와 같이, 주종 관
계와 같이 변합니다. 그러면 별 재미도, 즐거움도, 기쁨
도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낮에도 평소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계속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잡생각을 딱딱 끊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듯이 가정과 교회와 형제들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 큰 것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섭리사를 위해, 선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도 주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탄을 떨하기를 진실로 바라십니다. 고로 모두 기도하기를 심히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섭리사 각 개인과 가정들과 교회들과 각 나라들은 부지런히 진실로 기도하여 개인의 운명과 섭리사의 운명을 더욱 주님의 뜻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면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모두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빌면서 말씀 마칩니다.

<축 도>

지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삼위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